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간의 양면성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나 림

# 공간의 양면성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나 림

# 인 준 서

최나름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의 양면성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회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 사회의 과학 기술과 문명의 발달은 파괴되어 가는 자연과 지구촌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경제적 풍요 속에 소외되어가는 인간상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문명 하에 현대인은 획일화·규격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적응하고자 가식과 허영이 가득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인간은 사회라는 집단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 구도는 빠른 발전과 변화를 이끌었지만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적 자아와 내적 자아라는 양면의 모습을 형성하게 하여 물질적인 것으로 외면을 포장하고 표면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게 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사회의 모습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과 강박이라는 내면의 갈등을 품고 살아가게 하고 있어 포장되어진 자아의 모습은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비춰진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본인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관계 속에서의 진실된 소통에 대한 의식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 목적

을 두었고, 현대 사회와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고자 ‘포장’이라는 작업을 소재로 차용하여 ‘겉과 속’ 공간의 양면성에 관한 표현 연구를 하였다. 상징적 재료를 통한 입체 도형의 포장 작업은 겉면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도형의 배열과 화려한 장식적 구성으로 기하학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의 꺾데기를 표현하여 현대인의 포장되어진 이미지와 획일화 · 규격화 되어가는 사회적 현상을 상징화 한 것이다. 반면 속은 빈 공간이며 흰색으로 표현하여 포장되어지기 이전의 실체이자 본질에 대해 상징화 한 것으로 공간의 양면을 다양한 이분법적 구성과 대비를 통해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은 첫 번째, 현대 사회의 양면성과 기하학적 형상을 통한 공간에 대한 작품 형성 배경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 포장을 통한 공간의 양면성과 재료의 조형 표현, 색채와 빈 공간의 상징성에 대한 작품 표현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 8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현대 사회의 양면성 .....	3
2) 기하학적 형상을 통한 공간 .....	6
2. 작품표현방법 .....	8
1) 포장을 통한 공간의 양면성 .....	8
2) 재료의 조형 표현 .....	10
3) 색채와 빈 공간의 상징성 .....	13
3. 작품분석 .....	15
III. 결론 .....	38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포장 - Wine I, 아크릴, 큐빅, LED, 34×17×130cm, 2014 … 15
- 【작품 2】 포장 - Wine II, 아크릴, 큐빅, LED, 34×17×130cm, 2014 … 18
- 【작품 3】 포장 - Khaki, 아크릴, 큐빅, 58×16×52cm, 2014 … 21
- 【작품 4】 포장 - Red, 아크릴, 큐빅, 28×140×112cm, 2014 … 24
- 【작품 5】 포장 - Blue, 아크릴, 큐빅, LED, 55×26×50cm, 2014 … 27
- 【작품 6】 포장 - Green, 아크릴, 큐빅, 29×15×97cm, 2014 … 30
- 【작품 7】 포장 - Black I, 철, 스테인리스 스틸, 27×27×125cm, 2013 … 33
- 【작품 8】 포장 - Black II, 철, 스테인리스 스틸, 41×41×50cm, 2013 … 35

# I. 서론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 되거나 물질적 소유의 정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판단되고 타인의 눈에 의하여 나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분위기는 성공과 실패, 풍요와 결핍, 우월과 열등, 화려함과 초라함,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닌 사회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물질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존재 가치를 표현하려는 인간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고 집단에 어울리는 만들어진 사회적 자아를 통해 표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의 이미지는 사회적 자아라는 또 다른 자신을 만들게 되고, 사회적 자아와 본연의 내적 자아의 양면은 이중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현대인들은 더 나은 삶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으며 화려하고 멋진 삶에 대한 동경은 욕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 욕망은 물질로 포장되어지는 허영 가득한 인간상을 만들어 내고 이면에는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내면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기고 싶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포장 작업을 통해 형성되는 ‘겉과 속’ 양면의 공간은 현대 사회와 인간이 가지는 양면성이 조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상징적 공

간이다. 양면의 공간에서 곁은 일괄적인 형태를 화려한 장식으로 포장하였고 속은 빈 공간을 흰색으로 표현하였는데 물질문명의 발달로 현대사회와 인간을 통해 보여지는 현상의 밝고 화려하며 희망적인 모습의 이면에는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은 인간 내면의 허무함과 소외감,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자아의 순수한 본성과 참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물질로의 포장된 현상의 이면에 소외되어가는 정신성과 본질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 배경과 표현 방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현대 사회와 인간의 양면성, 그리고 기하학적 형상을 통한 공간에 대하여 고찰하고, 본인 작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개연성과 작가관을 설명하였다.

둘째, 본인의 작업에서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에 대한 조형적 표현 기법과 재료 및 색채를 통한 공간의 상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셋째, 본인의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 제작 과정과 방법, 제작 의도에 대하여 연구 과정을 서술하였다.

## Ⅱ.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현대 사회의 양면성

우리는 혁명적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화는 뜨거운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 자본주의는 정신적 가치의 근본마저 흔들고 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과 성장의 이면에는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현대 사회의 모습이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가지고 있는 것의 정도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 풍요로움과 부족함, 우월과 열등, 화려함과 초라함, 밝음과 어두움 등과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현대인에게 성공한 삶, 풍요로운 삶, 화려한 모습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꿈이거나 목표이다. 하지만 냉정한 현대 사회에서는 현재의 처한 현실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존재의 가치를 정한다. 그로 인해 인간은 순간의 실패나 초라함, 그리고 부족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상대적 박탈감, 강박, 소외감이라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과도한 욕망을 형성하여 물질로서 감추고 포장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만들어진 사회적 자아로서 소통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단지 포장된 껍데기일 뿐이다. 현대인은 거짓된 껍데기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진실을 외면하려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다양한 집단 속에서 복잡한 관계들을 형성해가며

살아가고 있고, 사회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본인 작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본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감추고 포장된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에는 뛰어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거짓과 탐욕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 고급 승용차와 명품과 같은 부유함을 마음껏 뽐내는 외면 뒤에는 신용불량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숨겨져 있었고,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것 같던 사람이 사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력서에서는 특별한 자격증 하나가 없는 사람이지만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이 가능한 사람도 있었으며,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로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포장되어진 이미지가 벗겨지고 난 후 느끼는 실망감과 관계의 허무함은 또 다른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형성하였고 때로는 본인마저도 포장된 이미지로 소통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진실된 관계의 소통이 아님을 알려주었고 이제는 진정성 있는 관계와 소통이 간절해졌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 독일 철학자)의 ‘건전한 사회’에서는 입센(H.Ibsen)이 <페르 귄트(Peer Gynt)>에서 자아상실을 현대인 비판의 중요 테마로 했던 19세기 당시 이래 자아의식이 얼마나 급격히 퇴보했는가! 작품<페르 귄트>에 등장하는 주인공 페르 귄트는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는 끝내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리고 알맹이는 없이 껍질만 껍질이 싸인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입센은 페르 귄트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허무라

고 하는 ‘쇠로 만든 국자’ 속에 던져지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할 정도의 인간적인 과묵에 직면한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허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냈다고 하였다.<sup>1)</sup>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은 사회의 이면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면의 세상이 있다. 현대인들은 그저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으며, 경쟁 사회의 구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껍데기뿐인 자신의 외면만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거짓된 포장 의식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다.

현대 사회 구조는 알맹이보다 껍질이 중요한 시대이다. 물질의 포장된 모습을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겉과 속의 상이한 양면성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인은 현대 사회 구조와 인간을 입체도형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 상징화 하여 포장하면서 생기는 표면과 내면에 다양하고 극단적인 이분법적 관계의 양면성을 표현하였고 포장되어 싸여진 공간의 내부를 보여줌으로써 껍질의 이면에 있는 알맹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1)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김병익 옮김, 범우사, 1990, p.147

## 2) 기하학적 형상을 통한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라는 시대의 공간은 산업화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공적이며 기능적인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개체들의 결합으로 집단화 · 조직화 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단조롭고 형식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기호나 상징적 사물처럼 존재함으로써 획일화 · 규격화 되어 가고 있다.

본인은 현대 사회와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정형화 된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일괄적인 모습으로 포장하고 상품화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면체를 비롯한 각기둥, 원뿔, 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입체 도형을 기본적인 조형 형태로 하여 기하학적 형상을 구현하였다. 기하학적 평면 도형에는 사각형, 삼각형, 원이 있다. 기하학적 평면도형은 비개성적이며 보편적인 형상이며 이들의 결합은 본인 작업에서 새로운 기하학적 형상을 만드는 요소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감성과 규칙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하학적 평면도형은 다양한 크기와 방법으로 반복 구성된다.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요소의 대상을 둘 이상 배열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과 사건사이,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모티브를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패턴(pattern)의 연속과 율동적인 움직임 뜻한다.<sup>2)</sup> 기하학적 평면 도형의 반복은 대중 사회의 특징을 패턴화 하거나 본인이 보는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상이한 2차 조형 형상

---

2)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34

을 만들어 현대 사회 구조의 특징인 규격화 · 획일화를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의 특성을 대변해주며, 통일과 변화, 조화와 대비의 양면성을 표현하는데 쓰였다.

기하학적 형태란 인류의 생성과 더불어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예술소재이다. 자연의 형태에 비해 단순하고 정적이며, 견고하면서 차갑고, 이지적이다. 그러한 합리적인 형태는 강한 인상 때문에 많은 조형작품에서 사용되었으며, 대상을 설명하는 객관성은 부족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서 우리는 함축된 의미를 즉, 작가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sup>3)</sup>

---

3)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86~88

## 2. 작품표현방법

### 1) 포장을 통한 공간의 양면성

우리는 현대 사회라는 포장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포장은 이분법적 구조를 형성하여 겉이라는 외면과 속이라는 내면의 공간을 만든다. 겉은 물체의 바깥 부분,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현상을 말하며 표면, 외피, 껍데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대말인 속은 거죽이나 껍질로 싸인 물체의 안쪽 부분, 일정하게 둘러싸인 것의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사람의 몸에서 배의 안 또는 위장내부, 시속이나 세속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말로는 내면, 알맹이 등이 있다.<sup>4)</sup> 그리고 겉과 속은 현상과 본질, 몸과 마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본인은 포장된 공간의 겉과 속을 재료와 색채의 대비와 결합하여 이분법적으로 표현하여 분명하고 상이한 양면성을 가진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현대 사회는 화려하고 멋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보인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표면에 반짝거리는 재료인 큐빅과 펄 아크릴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껍데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화려함이 가지는 이면의 공허함과 초라함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와 뻣뻣하게 채워져 있는 외면의 장식의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대비시킴으로써 있음과 없음, 채움과 비움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의 양면성을 색채 대비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색채는 유채색과 무채색, 보색 관계, 밝고 어두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분법적 구조로 표현이 가능

---

4) 네이버 어학사전 '겉, 속' 인용

하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밝고 어두움에 대한 양면성을 흑과 백을 통해 표현하거나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교차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상징화하였다.

포장은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본인 작업의 포장시리즈에서는 겉은 기하학적 평면 도형의 패턴을 통해 사회적 현상이나 현대인의 외형을 표현하고 속은 흰색의 빈 공간으로 표현하는 일괄적인 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포장 - Khaki]의 창, [포장 - Red]의 찢어짐, [포장 - Green]의 벗겨진 껍질, [포장 - Black II]의 선으로 묶어지는 형태 등은 겉과 속의 양면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방식으로서 속으로의 관심을 유도하게 하려는 장치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냥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본인이 유도한 방식을 통해 숨겨져 있는 내면의 진실을 확인하게 되고 포장에 의해 가공되고 꾸며진 모습의 이면에 흰색의 빈 공간은 실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와 인간의 포장되어진 모습을 입체 도형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표현하고자 [포장 - Blue]에서는 겉과 속을 뒤집어서 표현하였다. 겉이 흰색이고 속은 파란색의 포장된 공간에 긴 사각형의 규칙적으로 분할된 공간으로 큐빅이 뾰뚱하게 채워져 있다. 그리고 [포장 - Black II]도 선으로 묶어진 형태가 뒤집어져 있어 흰색 부분이 겉이 되고 검정색 부분이 속이 되도록 표현하였다.

## 2) 재료의 조형 표현

본인 작업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현대 사회의 특징인 산업화와 물질문명에 의해 생산된 것들로 현대 사회의 풍요로움, 이성적이고 차가운 도시 이미지, 화려한 현대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표면을 장식하는 요소로서 사용되었다.

첫 번째로 큐빅(cubic)은 본인 작업의 포장시리즈 [포장 - Wine I ~ II, Khaki, Red, Blue, Green]에서 멋스럽게 포장된 사회와 화려하게 치장한 인간의 겉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서 작품 표면의 장식적 요소로 사용되었다. 큐빅은 본인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인 오브제(object)이다. 오브제는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의미에서 벗어나 본인의 작업에서 새로운 의미와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큐빅은 현대 사회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 인공적인 물질이며 기성품으로 악세사리(accessory)의 부속품적인 역할이나 여성성,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현대 사회의 풍요로움이나 화려함을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을 은유하는 오브제로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집단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이자 물질화 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토니 크랙(Tony Cragg, 1949~)<sup>5)</sup>은 1980년대 초반, 모양이나 종류가

---

5) 토니 크랙 [Tony Cragg, 1949~]: 영국의 현대 조각가. 1980년대 초반 플라스틱 파편을 벽에 부착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현대의 수많은 재료들에 새로운 질서와 형식 그리고 이론을 부여하였으며, 무생물적인 것에서 생명의 순환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하찮은 대상과 보잘 것 없는 재료들을 예술로 격상시켰다. 대량 생산의 배설물이라 할 수 있는 폐품과 쓰레기를 모아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형상을 만들어 내는 그의 작업은 인간과 물질 또는 문명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니 크랙 [Tony Cragg] (두산백과)

다른 가지각색의 플라스틱 파편이라는 ‘발견된 사물(found object)’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발견된 사물은 미술 작품이나 미술 작품의 일부로 간주되는 사물을 일컫는다. 선택되는 사물은 주로 일상적인 것으로 원래의 용도와 모양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변형을 가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조약돌, 조개껍데기처럼 자연물일 수도 있고 도자기 파편, 기계 부품과 같은 인공물일 수도 있다. 발견된 사물이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가가 우연히 발견한 사물을 ‘미학적 사물’로 규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하여 다른 사람이 감상하도록 해야 한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뒤상이 1913년부터 실험하기 시작한 ‘레디메이드’가 효시이며, 이후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분류할 수 없을 만큼 일상적으로 통용된다.”<sup>6)</sup> 그러므로 본인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큐빅은 오브제뿐만 아니라 발견된 사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아크릴이다. 아크릴도 현대 사회 구조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대변하는 물질로서 절단 및 접착이 간단하며 저항성이 강하고 쉽게 형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오랜 시간 작품의 보존과 관리함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본인 작업의 포장시리즈 [포장 - Wine I ~ II, Khaki, Red, Blue, Green]에서 뼈대이자 틀, 타일(tile)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펠 아크릴의 특징인 표면의 광택과 펠의 반짝거림은 현대인의 풍요로운 삶의 공간과 세련되고 도시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상징적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큐빅과 더불어 작품의 외면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화려함과 현대성을 표현하

---

6) 크레이그 맥다니엘 · 진 로버트슨,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 역, 두성북스, 2013, p.43

기에 적합하여 현대 사회의 포장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세 번째로 철이다. 철은 현대 사회의 상징적 물질로 20세기 현대 미술의 보편적인 조각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본인은 강한 물성을 가진 철의 견고함과 차가운 이미지를 냉정하고 이성적인 현대 사회의 이미지로 보았으며 물질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았다. 포장시리즈 [포장 - Black I ~ II]에서 철판의 양면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크롬도색을 하여 색의 대비를 통한 이분법적 공간을 표현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검고 어둡게 포장된 사회의 모습과 그 이면에는 흰색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희망을 상징하였다. 또한, 물질의 딱딱하고 견고한 형태의 내부에 자유로운 변형을 통한 부드럽고 유연함과 가벼움을 보여줌으로써 물질이 가지는 이중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LED는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산물로서 여러 가지 색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빛의 효과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색상과 시간의 반복과 교차에 의해 겹으로 보이는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포장시리즈 [포장 - Wine II]에서는 내면의 공간에서 갈등을 표현하는 매체로 사용되었고, 화려한 내부 조명의 켜짐과 꺼짐을 통한 형상의 변화는 겉과 속의 이분법을 표현하는 중요한 효과중 하나이다. 그리고 [포장 - Wine I, Blue]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큐빅이나 아크릴이 가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속’으로의 관심을 유도해서 본인의 연구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로 쓰였다.

### 3) 색채와 빈 공간의 상징성

색채가 주는 이미지는 주로 연상과 관련되는 점이 많고, 이런 연상성 때문에 추상적인 관념의 표현도 색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색채로 언어의 전달도 가능하다. 색채는 그 자체로 정서적 표현력에 있어서 객관적인 공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못지 않는 전달력을 갖는다.<sup>7)</sup>

본인은 색채가 주는 강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흰색을 상징적 색채로 규정하여 공간과의 결합을 통한 상징적 공간을 표현하였고, 흰색을 제외한 다른 색이 가지는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포장 - Black I ~ II]에서는 검정색이 가지는 죽음, [포장 - Green]에서는 무료함의 녹색과 허영의 금색, [포장 - Red]에서는 적색의 전쟁, [포장 - Blue]는 청색의 불안, 우울함을 상징화 하였다. 또한 [포장 - Black I ~ II]에서는 검정색과 흰색 대비를 통해 이분법적 특성을 극대화 시키고 공간의 양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흰색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특수한 개념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 삶의 방식에 따라 다소 다르다. 뤼셔(Luscher)는 흰색을 “색이 없는 색, 이 색을 선호하는 사람의 정신을 보여준다. 색채 실험에서 누군가가 무채색인 흰색을 목록에서 꼽는다면, 그는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파브르(Favre)와 노벰버(November)는 “하양은 ‘깨끗함’, ‘도달하기 어려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과 같은 뜻을 암시한다. 이 색의 특성은 결점에서 공허함 혹은 무한함의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흰색은 우리의 영혼에 절대 침묵으로 작용

---

7) 루이스 체스킨, 「실용 색채」, 홍종명(역), (서울 : 신아각), 1977, p.112

한다. 그러나 이 침묵은 생동감이 있는 가능성의 침묵이다.”<sup>8)</sup> 라고 언급하였는데 본인의 작업에서는 양면성과 더불어 모든 작품에 흰색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양하고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겉면과는 달리 속은 비어 있고 흰색으로만 표현되었다.

흰색은 깨끗함, 순수, 결백, 시작, 공백 등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본인 작업에서 흰색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공간과 결합되어져 순수한 본질이자 알맹이가 되기도 하고 자유롭고 희망적인 공간을 표현하기도 하는 흰색 공간으로 구성되어졌다.

비움은 ‘비어있음’ 으로 본인의 작업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채워지게 될 가능성과 새로운 시작으로의 의지를 담고 있는 반면에 공허함을 표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리고 흰색과 비움은 같은 맥락으로 상정하여 결합되어졌는데 이 둘의 결합은 ‘아무것도 없는 흰색 공간’ 이다. 조형적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겉과 달리 속은 아무것도 없는 흰색 공간으로 상정하여, 현실과 이상, 채움과 비움, 화려함과 공허함, 답답함과 자유로움, 거짓말과 진실, 끝과 시작 등의 이분법적 구조로 다루며 다각적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흰색 공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공간이며 포장되어진 이미지의 껍데기를 벗겨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의 본질이자 초심, 그리고 시작을 상징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결국 본인이 작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

8) 하랄드 브람, 「색의 힘」, 이재만 번역, 일진사, 2010, p.166~175

### 3. 작품분석



【작품 1】 포장 - Wine I

## 【작품 1】 포장 - Wine I

연도 : 2014년

크기 : 34×17×130cm

재료 : 아크릴, 큐빅, LED

###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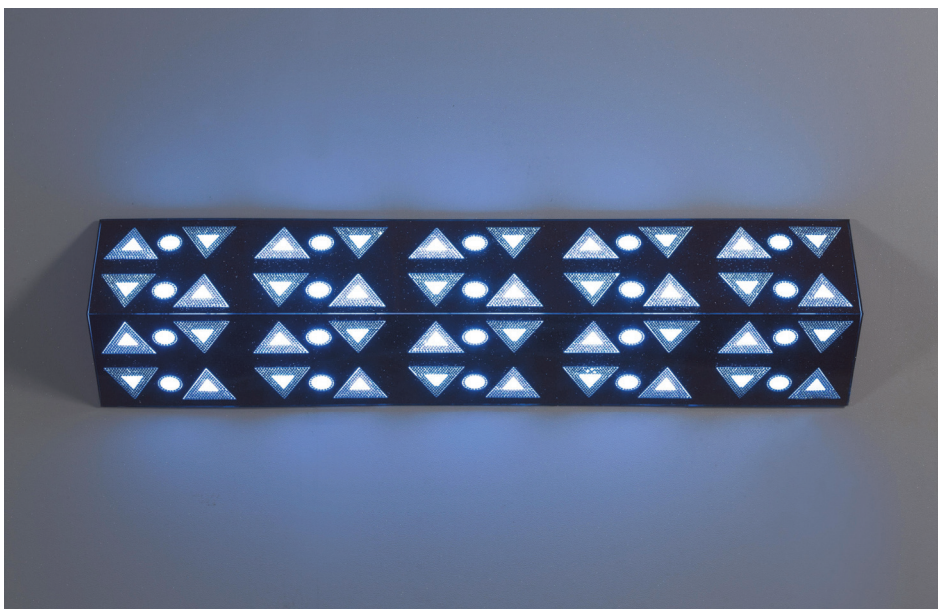
- 1)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재단된 흰색 아크릴과 와인색 펄 아크릴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양면이 되게 하고 5개의 면을 이어 붙인다.
- 2) 표면에서 보았을 때의 아크릴 타일이 들어가는 흰색 면에 미리 재단한 접착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색 펄과 은색 펄 타일 조각을 붙인다.
- 3) 금색 펄과 은색 펄 타일을 제외한 표면의 남아 있는 흰색 부분에 미리 재단한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위에 큐빅을 붙인다.

### 작품설명

직육면체를 대각선으로 분할하면 생기는 삼각기둥의 형태이다. 공간의 양면을 와인색 펄과 흰색 아크릴로 부착하여 외부와 내부공간이라는 이중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의 표면에는 금색 펄과 은색 펄의 아크릴 타일 조각과 AB CRYSTAL과 AB TOPAZ 큐빅을 붙여 두 가지 색상의 큐빅이 대각선으로 교차 대비되는 반복 구성을 통해 새로운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었다.

화려하게 빛나는 현대 사회를 상징화하여 포장한 껍데기의 내부에는 흰색의 빈 공간이 있다. 화려한 포장의 이면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표현

하였으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사회의 포장되기 이전의 깨끗함과 순수했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하학적 형상으로 찢어짐을 표현하였고 백색 LED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으로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작품 2】 포장 - Wine II

## 【작품 2】 포장 - Wine II

연도 : 2014년

크기 : 34×17×130cm

재료 : 아크릴, 큐빅, LED

### 제작방법

- 1)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재단된 흰색 아크릴과 와인색 펠 아크릴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양면이 되게 하고 5개의 면을 이어 붙인다.
- 2) [포장 - Wine I]에서 아크릴 타일 조각이 들어가는 흰색 면에 접착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위에 두 가지 색상의 큐빅을 붙인다.

### 작품설명

[포장 - Wine I]과 같은 삼각기둥의 형태이다. 직육면체를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생기는 2개의 삼각기둥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포장 - Wine I]에서 금색 펠과 은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이 붙여졌던 부분에 [포장 - Wine II]는 큐빅을 붙였다. 그리고 [포장 - Wine I]에서는 내부에 백색 LED가 고정되어 있었지만 [포장 - Wine II]에서는 녹색, 청색, 백색 LED가 계속해서 변화한다.

같은 형상에 다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고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재료에 의한 표현 기법과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큐빅으로만 포장한 껌데기는 현대 사회의 폭발적인 욕망에 대한 표현이며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내부에는 다양한 색상의 LED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갈등을 표현하였다. LED가 켜졌을 때는 내면의 갈등을 다양한 색의 효과로 현대 사회와 인간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반면 LED가 꺼졌을 때는 큐빅으로 포장된 껌데기와 포장되지 않은 흰색 부분을 보여주어 껌데기의 허상이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3】 포장 - Khaki

### 【작품 3】 포장 - Khaki

연도 : 2014년

크기 : 58×16×52cm

재료 : 아크릴, 큐빅

#### 제작방법

- 1)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재단된 백색 펠 아크릴과 카키색 펠 아크릴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양면이 되게 하고 6개의 면을 이어 붙인다.
- 2) 표면에서 보았을 때의 아크릴 타일 조각이 들어가는 백색 아크릴 면에 접착스티커를 부착하고 흑색 펠과 은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을 붙인다.
- 3) 흑색 펠과 은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을 제외한 표면의 남아 있는 백색 아크릴 면에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위에 두 가지 색상의 큐빅을 붙인다.

#### 작품설명

직육면체의 형태이다. 공간의 양면을 카키색 펠과 백색 펠 아크릴을 붙여서 외부와 내부공간이라는 이중적 공간을 형성하게 하고, 외면의 카키색 펠 아크릴의 내부에는 흑색 펠과 은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과 AB CRYSTAL과 AB TOPAZ 큐빅을 붙여 수직·수평으로 교차 대비되는 반복 구성을 통해 새로운 기하학적 형상으로의 외면을 표현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 속 인간의 형상과 정형화·획일화 되어가는 사회 구조를 상징화하여 포장한 껍데기에는 개체의 수직·수평의 반복적 구성과 결합을 통해 전체의 구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구조와 관계의 딱딱하고 고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카키색, 흑색, 은색의 무채색의 아크릴은 무채색으로 암울함과 고독한 사회 분위기를 표현하였으며, 큐빅과 펠 아크릴을 통한 화려함과 반짝거림은 형태나 구조와 다르게 세련되고 도시적인 외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개체들의 폭발적인 욕망은 전체적인 사회적 현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게 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으며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보이지 않고 있음을 상징화 한 것이다. 또한, 16개의 사각형의 창을 만들어 내부를 보여주는데 포장된 껍데기의 내면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속은 백색의 열려있는 빈 공간으로 은은하게 반짝이며 빛이 나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포장된 껍데기의 본질은 꾸밈과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 4】 포장 - Red

#### 【작품 4】 포장 - Red

연도 : 2014년

크기 : 28×140×112cm

재료 : 아크릴, 큐빅

####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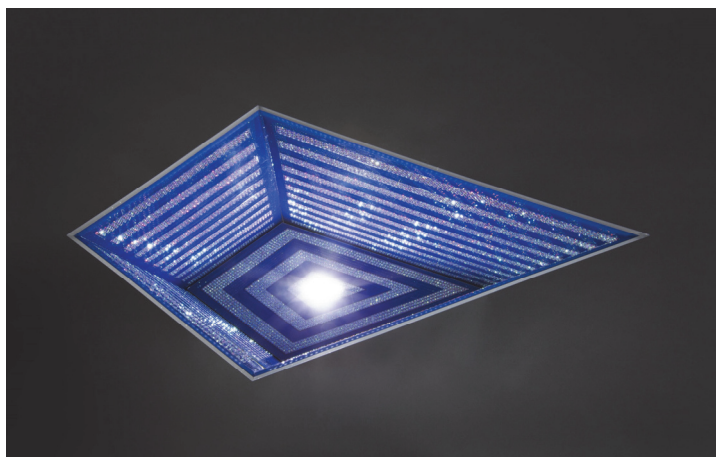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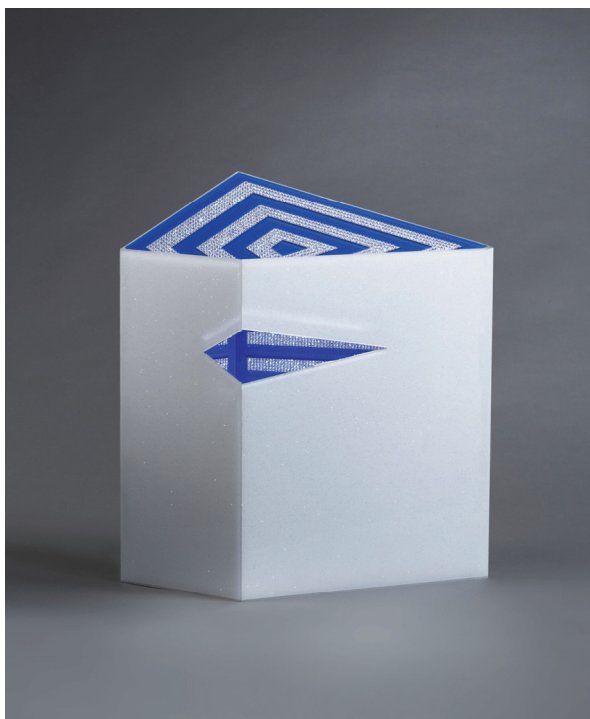
- 1)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재단된 흰색 아크릴과 적색 펠 아크릴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양면이 되게 하고 6개의 면을 이어 붙인다.
- 2) 표면에서 보았을 때의 아크릴 타일 조각이 들어가는 흰색 아크릴 면에 접착스티커를 부착하고 흑색 펠과 녹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을 붙인다.
- 3) 흑색 펠과 녹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을 제외한 흰색 아크릴 면에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위에 두 가지 색상의 큐빅을 붙인다.

#### 작품설명

직육면체의 형태이다. 공간의 양면을 적색 펠과 흰색 아크릴로 부착하여 외부와 내부공간이라는 이중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적색 펠 아크릴의 내부에는 흑색 펠과 녹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과 AB CRYSTAL과 AB ROSE 큐빅을 붙여 대각선으로 교차되게 하여 반복 구성을 통해 직선적 패턴 이미지의 외면을 표현하였다.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뜨거운 열정과 활발한 관계 속에

서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적색 바탕의 포장된 껍데기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현대 사회의 상징체이다. 흑색 펠과 녹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은 현대 사회의 파괴와 어두움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큐빅과 펠 아크릴의 반짝거림은 자극적이고 뜨거운 사회적 현상과 인간의 삶을 극대화시키는 데 쓰였다. 또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찢어짐을 표현하여 내부를 보여줌으로써 흰색의 빈 공간을 통해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의 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외감과 공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 5】 포장 - Blue

## 【작품 5】 포장 - Blue

연도 : 2014년

크기 : 55×26×50cm

재료 : 아크릴, 큐빅, LED

### 제작방법

- 1)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재단된 백색 펠과 청색 펠 아크릴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양면이 되게 한다.
- 2) 청색 펠을 제외한 부분이 되는 백색 펠 아크릴 뒷면에 접착스티커를 부착하고 큐빅을 붙인다.
- 3) 백색 펠이 겹, 청색 펠이 속이 되도록 6개의 면을 이어 붙인다.

### 작품설명

직육면체의 구조에 변화를 준 형태이다. 백색 펠 아크릴에 청색 펠 아크릴을 양면으로 붙이고 백색 펠 아크릴이 바깥 면을 향하도록 하여 겹과 속을 뒤집어 놓았다. 표면에서 보이는 백색 펠 아크릴의 내부에는 청색 펠 아크릴 면의 바탕에 일괄적으로 긴 사각형 형태의 공간이 있고 한 가지 색의 큐빅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폐턴이 최소화된 밑면의 공간에서 백색의 LED가 비춰지는데 내부 공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며 큐빅의 반짝거림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였다.

기하학적 형상의 찢어짐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속에는 청색 바탕에 폭발적으로 가득 채워진 큐빅이 있다. 청색은 차가움, 공상, 불안, 우울함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현대 사회의 차갑고 이성적인 이미지와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사회적 분위기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빼곡히 가득 채워진 큐빅들은 현대 사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일정한 틀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의 존재감은 집단의 규모나 크기로써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되어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음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걸은 백색의 반짝거리는 펠 아크릴로 걸과 속을 뒤집어 흰색의 빈 공간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흰색 공간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서 접근을 유도하고 공간 표현에 대한 역발상과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시도이다.



【작품 6】 포장 - Green

## 【작품 6】 포장 - Green

연도 : 2014년

크기 : 29×15×97cm

재료 : 아크릴, 큐빅

### 제작방법

- 1)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재단된 백색 펠과 녹색 펠 아크릴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양면이 되게 하고 5개의 면을 이어 붙인다.
- 2) 표면에서 보았을 때의 아크릴 타일이 들어가는 백색 펠 아크릴 면에 접착스티커를 부착하고 흑색 펠과 금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을 붙인다.
- 3) 흑색 펠과 금색 펠 타일 조각을 제외한 백색 펠 아크릴 면에 접착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위에 두 가지 색상의 큐빅을 붙인다.

### 작품설명

직육면체가 대각선으로 분할된 삼각기둥 형태이다. 공간의 양면을 녹색 펠과 백색 펠 아크릴로 부착하여 꺾질과 알맹이이라는 이중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흑색 펠과 녹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과 AB CRYSTAL과 AB TOPAZ의 두 가지 색상의 큐빅이 수직·수평으로 교차 대비되는 반복 구성을 하여 직선적 패턴 구성을 형성하였다.

차갑고 냉정한 현대 사회의 무관심한 분위기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

간의 무료한 삶을 녹색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상징화 하였고  
흑색 펠과 금색 펠의 아크릴 타일 조각이 서로 수직·수평으로 교차되  
게 반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흑색이 가지는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  
지와 금색이 가지는 허영과 무기력을 상징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였다.  
그리고 사각형 틀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큐빅을 통해 집단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일괄적으로 보여주어 존재의 가치가 퇴색하고 무의미하  
게 보여지는 것을 표현하였다.

외부의 표면에서 녹색의 포장된 껍데기의 끝부분은 불규칙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포장된 껍질을 찢거나 뜯으면 생기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  
로 벗겨짐을 통한 내부에는 백색의 하얀 알맹이가 드러난다. 포장된 껍  
데기의 알맹이는 흰색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긍정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담아 표현한 것으로 반짝거리는 하얀 알맹이는 빛과 기쁨을 선물하고  
자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다.



【작품 7】 포장 - Black I

## 【작품 7】 포장 - Black I

연도 : 2013년

크기 : 27×27×125cm

재료 : 철, 스테인리스 스틸

### 제작방법

- 1) 철 사각파이프를 사이즈 별로 절단하고 아크 용접하여 정육면체의 형태로 붙인다.
- 2) 스텐 판을 재단, 밴딩하여 겹치게 구성하고 알콘 용접하여 리본 형태로 제작한다.
- 3) 사각 파이프로 만들어진 직육면체 구조물에 리본 조각을 부착한다.
- 4) 겉면은 검정색, 내면은 흰색으로 크롬 도색한다.

### 작품설명

철이라는 현대 사회의 상징적 물질을 통해 차갑고 이성적인 도시 공간을 제작하였다. 겉면은 검정색 도색을 했고, 내면은 흰색으로 도색하여 현대 사회의 양면성과 이분법적 공간 구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내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각파이프와 같은 간격으로 창을 형성하여 감옥과도 같은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으며 리본을 부착하여 포장된 도시 감옥을 상징화 하였다. 그리고 그 속은 열려있는 빈 공간을 흰색으로 표현하여 열려있으면서도 닫혀있는 것과 같은 현대인의 사회적 공간과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8】 포장 - Black II

## 【작품 8】 포장 - Black II

연도 : 2013년

크기 : 41×41×50cm

재료 : 철, 스테인리스 스틸

### 제작방법

- 1) 철판을 10cm로 재단하고 정육면체를 감싸는 띠의 형태로 붙인다.
- 2) 띠의 내부에 사각형과 원 형태의 장식물을 알곤 용접하여 붙인다.
- 3) 스텐 판을 5cm로 재단·밴딩하여 겹치게 구성하고 알곤 용접하여 리본 형태로 제작한다.
- 4) 직육면체를 감싸는 띠의 내부에 리본 조각을 부착한다.
- 5) 겉면은 흰색, 내면은 검정색으로 크롬 도색한다.

### 작품설명

철이라는 현대 사회의 상징적 물질로서 현대 사회를 포장하였다. 직육면체 형태의 공간을 수직선으로 연결하였고 내부에 리본 조각을 넣었다. 직선과 곡선을 통해 철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이중적 특성을 표현하고 겉면은 흰색, 내면은 검정색으로 도색하여 색채를 통한 이분법적 구성을 하였다. 내부에는 사각형과 원의 형태를 보이는 장식물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구성하여 패턴 이미지를 표현하고 검정색으로 도색하였는데 차갑고 이성적인 현대 사회의 도시 공간을 포장하고 무심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리본 장식은 화려하고 멋지게 포장되어진 삶의

공간을 상징하였으며, 사각 구조의 내부에 부착되어 겉과 속의 공간이 내부 구성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겉과 속이 뒤집어져서 흰색 면이 바깥을 향하고 있어 어둠의 이면에 밝고 희망적이며 자유로움이 무한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인간은 문명이 가지는 양면성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누리고 있으며 욕망과 욕망을 위한 투쟁, 만족과 억제라는 끊임없는 갈등을 거치며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는 획일화·규격화 된 일괄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거짓된 껍데기와 물질로 자신을 포장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주체성을 상실하여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소중한 꿈마저 잃어가고 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정작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것임을 간과하고 있음이다.

본인은 포장시리즈라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겉과 속’ 공간의 양면성 표현 연구를 하였다. 기하학적 도형의 결합과 반복 구성은 현대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하여 패턴으로 포장된 껍데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표현하였다. 획일화·정형화 되어가는 사회적 현상과 차갑고 이성적이며 어두운 현대 사회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재료와 다양한 색상들을 통해 조형화하였고, 기하학적 형상의 찢어짐이나 창 의 형태로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속은 흰색의 빈 공간으로 표현하고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껍데기의 허무함이나 어둡게 포장되어진 껍데기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새로운 시작과 잠재적 가능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여 결과 속을 다양하게 이분법적으로 조형화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인은 현대 사회와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작품 연구를 통하여 현대인들이 비개성적이고 일괄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소통하고 하얀 도화지와 같이 넘치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앞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성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여 창의적인 표현 방식과 조형화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김병익 옮김, 범우사, 1990
- 크레이그 맥다니엘 · 진 로버트슨,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 역, 두성 북스, 2013
- 루이스 체스킨, 「실용 색채」, 홍종명 역, (서울 : 신아각), 1977
- 하랄드 브람, 「색의 힘」, 이재만 역, 일진사, 2010

### 《기타》

- 네이버 어학사전
- 두산백과사전

#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ouble-sidedness of space.

– around my works –

Choi, Na Rum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age we live in shows a social phenomenon with extremely contrasting dualism of externally revealed world and invisible inner world.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in modern society caused several social issues in nature and global village which have been destroyed and led to image of human isolated in the economic abundance. Modern people have been unified and standardized under highly advanced civilization, changed into the image of human filled with pretense and vanity in order to adapt themselves to the world and lost the meaning and value of true life.

People make a relationship through the group of society and live

their daily life in various relations. Excessive competition of modern society led to rapid growth and changes, but it made the double-sidedness of social and inner ego in modern people whose relationship with others is importance and let them decorate their appearance with material things. But, there are internal conflicts such as anxiety and compulsion to adapt themselves to society behind their life and while their ego in disguise can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intention to overcome and succeed in the present life, it shows double-sidedness in that it may be viewed as a means to deny reality.

With this background view, this study aims to provide modern people with a chance of having consciousness of true communication in the meaning, value and relationship of true life and examine the expression of double-sidedness of space, 'inside and outside' of space by borrowing the work of 'packing' as a material in order to show the dualism of modern society and human being. Packing work of a solid figure using symbolic materials expresses the outside of a geometrical and solid shape with the arrangement of repeated and regular figures and splendid ornamental composition and symbolized the social phenomena which has been unified and standardized with packed image of modern people, and also expresses the inside with empty and white space, symbolizing its entity and essence before being packed through various dichotomous composition and contrast of

double-sided space.

This study consists of the works from 2013 to 2014.

Chapter I, introduction part, describes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the research.

Chapter II first states the background of the works based on the dualism of modern society and geometrical shapes. Second, it examines the expression methods of the work based on double-sidedness and formative expression of space, and symbolism of colors and empty space, and then analyzes 8 works by the researcher.

Chapter III summarizes the study and suggests the future work dire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